

고려 <청산별곡>과 조선 <발상> 중 <강보>의 관계

The relationship of *Cheongsan byeolgok* in Goryeo Dynasty and *Gangbo* among *Balsang* in Joseon Dynasty

정 경 란
한국학중앙연구원

Chung kyung-rhan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요약

<청산별곡>은 고려시대의 작자 미상의 가요이며, <강보>는 조선 세종이 창제한 <발상> 중의 한 곡으로, 『세종실록』에 의하면 <발상>은 기존의 고취악과 향악에 의거하여 창제되었다고 하였으므로, 이 기록에 근거하여 이 논문은 <발상> 중 <강보>가 고려 향악인 <청산별곡>에 근거하여 창제되었음을 고증한 논문이다.

I. 서론

<청산별곡(靑山別曲)>은 『악장가사(樂章歌詞)』와 『악학편고(樂學便考)』에 악보 없이 8연의 가사가 전하고, 『시용향악보(時用鄉樂譜)』에 악보와 함께 가사 제1연이 전한다.

<청산별곡>은 고려 때의 무가인 <대국(大國)>, 조선시대인 1393년(태조 2년) 정도전(鄭道傳)이 만든 <납씨가(納氏歌)>[1], 세종 때의 <정대업(定大業)> 중의 <휴명(休命)>[2], 세조 때의 <경근지곡(敬勤之曲)> 등에 선율이 발췌되거나, 조(調)가 바뀌고, 악곡의 길이가 증가되는 등 다양하게 변모되어 새로운 악곡으로 전승되었다.

『세종실록』에 의하면 세종은 고취악과 향악에 인하여 신악인 <정대업> · <보태평(保太平)> · <발상(發祥)> · <봉래의(鳳來儀)>를 창제하였다고 하였다.[3]

<발상>은 조상(祖上)이 하늘에서 내린 상서(祥瑞)를 받았다는 것을 노래와 춤으로 나타낸 무곡(舞曲)으로 모두 11곡으로 이루어졌고, 남려(南呂)를 중심음으로 하는 평조이며, <강보(降寶)>는 그 중 여덟 번째 곡이다.

세종의 신악이 고취악과 향악에 의하여 창제되었다는 기록에 의해 이 연구에서는 <발상> 중 <강보>가 고려 향악인 <청산별곡>에서 어떻게 영향을 받아 창제되었는지를 밝혀내는 것으로 한다. 분석대상 악보는 <청산별곡>이 수록된 『시용향악보』와 <강보>가 수록된 『세종실록악보』이다.

II. 청산별곡, 강보의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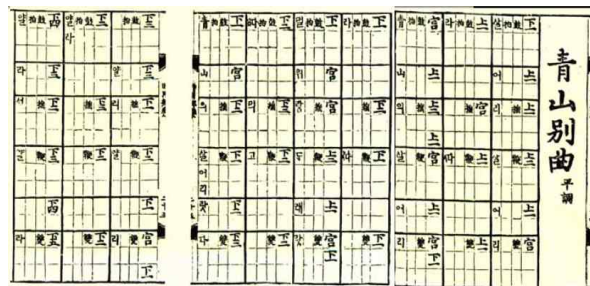
<청산별곡>의 제작 시기는 분명하지 않으나 대체로 고려후기로 알려져 있으며, 작자에 대해서도 귀족계급, 농민, 유민, 농민반란군, 관거나 관노, 평민 등 다양한 계

층으로 추정되었다. 『시용향악보』의 <청산별곡> 가사와 악보는 [표 1], [악보 1]과 같으며, 16정간 1행의 총 10행으로 이루어졌고, 평조이며, 오음약보(五音略譜)로 기보되었다.

[표 1] 『시용향악보』의 <청산별곡> 가사

구성	가사
1연	살어리 살어리랏다 靑山の 살어리랏다 멀위랑 드래랑 따먹고 靑山の 살어리랏다 알리 알리 알라 알라성 알라

[악보 1] 『시용향악보』의 <청산별곡> 악보[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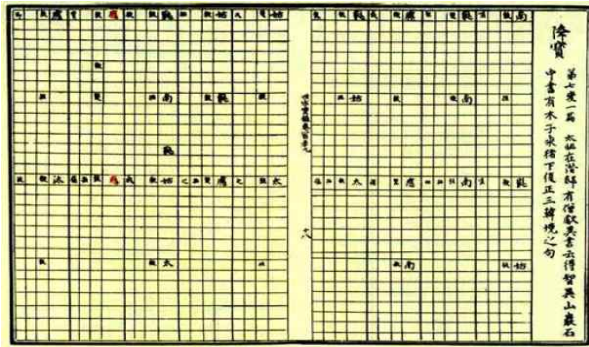


<강보>는 <발상>의 11곡 중 여덟 번째 곡이다. <강보>는 태조(太祖)의 잠저(潛邸) 때에, 어떤 중이 이상한 글을 바치면서, 지리산 바위 속에서 얻었다고 하는데, 그 글에 “목자(木子)가 돼지를 타고 내려와서, 다시 삼한(三韓)의 땅을 바로잡으리라”고 하는 귀절이 있었다는 것을 노래한 것으로 악보는 『세종실록악보(世宗實錄樂譜)』에 기보되어있다.[5]

<강보>를 포함한 <발상>은 세종 29년(1447년)부터 세조 6년(1460년)까지만 기록이 나오고 현재 음악이 전승

되지 않기 때문에 세종 때 창제되어 세조이후 언제까지 전승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악보는 『세조실록악보』에는 보이지 않고, 『세종실록악보』에서만 찾아볼 수 있다. 〈강보〉는 32정간 1행으로 되어있으나, 〈청산별곡〉과 같이 16정간을 1행으로 본다면 총 48행으로 이루어졌고, 남려궁평조이며, 율자보(律字譜)로 기보되어 있다. [악보 2]

[악보 2] 『세종실록악보』의 〈강보〉 악보



Ⅲ. 〈청산별곡〉과 〈강보〉의 악곡 비교

48행의 〈강보〉와 10행의 〈청산별곡〉을 비교한 결과 〈강보〉 1-2행은 〈청산별곡〉의 3-4행을, 〈강보〉 3-12행은 〈청산별곡〉의 5-7행을, 〈강보〉 13-16행은 〈청산별곡〉의 8-10행을 발췌하여 〈청산별곡〉을 한번 연주하고, 다시 〈강보〉 17-20행은 〈청산별곡〉의 1-2행을, 〈강보〉 21-22행은 〈청산별곡〉의 3행을, 〈강보〉 23-30행은 〈청산별곡〉의 5-7행을, 〈강보〉 31-32행은 〈청산별곡〉의 10행을 발췌하여 두 번째 〈청산별곡〉을 발췌하여 연주한다. 또한 〈강보〉 33-38행 제8정간까지는 〈청산별곡〉의 1-2행을, 〈강보〉의 38행 제9정간부터 40행까지는 〈청산별곡〉의 3-4행을, 〈강보〉 41-44행은 〈청산별곡〉의 5-7행을, 〈강보〉 45-47행 제8정간까지는 〈청산별곡〉의 8-9행을, 〈강보〉 47행 제9정간부터 48행까지는 〈청산별곡〉의 10행을 발췌하여 〈강보〉는 〈청산별곡〉을 총 세 번 반복하여 발췌하였다.

〈강보〉와 〈청산별곡〉의 선율관계를 나타내면 [표 4]와 같다.

[표 4] 〈강보〉와 〈청산별곡〉의 선율 비교표

강보	1행	2행	3행	4행	5행	6행	7행	8행	9행	10행	11행	12행	13행	14행	15행	16행
청산별곡	3-4행			5-7행				8-10행								

강보	17행	18행	19행	20행	21행	22행	23행	24행	25행	26행	27행	28행	29행	30행	31행	32행
청산별곡	1-2행		3행			5-7행					10행					

강보	33행	34행	35행	36행	37행	38행	39행	40행	41행	42행	43행	44행	45행	46행	47행	48행
청산별곡	1-2행		제8정간			3-4행		5-7행			8-9행		10행			

〈강보〉와 〈청산별곡〉의 선율을 살펴본 결과, 〈강보〉

48행은 1-16행, 17-32행, 33-48행의 세 단락으로 나누어 져있으며, 이 세 단락은 〈청산별곡〉 1행부터 10행까지의 선율을 세 번 반복한 것이다. 세종 때 〈발상〉 중 〈강보〉는 고려향악곡인 〈청산별곡〉에서 발췌된 곡임이 확인되었다.

Ⅳ. 결론

조선의 세종은 고취악과 향악에 인하여 신악인 〈정대업〉·〈보태평〉·〈발상〉·〈봉래의〉를 창제하였다. 실제 세종이 〈정대업〉 중의 〈휴명〉을 〈청산별곡〉에서, 〈화태(和泰)〉를 〈서경별곡(西京別曲)〉에서, 〈보태평〉 중의 〈형광(亨光)〉을 〈귀호곡(歸乎曲)〉에서, 〈보예(保義)〉를 〈야심사(夜深詞)〉에서 발췌하여 신악을 창제하였던 것처럼, 이 연구는 세종이 〈발상〉 중의 〈강보〉도 향악인 〈청산별곡〉에 근거하여 창제하였다고 추정하고 〈청산별곡〉과 〈강보〉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즉 〈강보〉와 〈청산별곡〉의 선율을 비교 분석한 결과 48행의 〈강보〉는 10행의 〈청산별곡〉을 세 번 반복하였는데, 〈강보〉의 1-16행, 17-32행, 33-48행이 그 세부분이다. 〈청산별곡〉과 〈강보〉의 선율비교 결과 거의 선율이 같거나 유사함을 알 수 있었다.

세종 때 〈발상〉 중의 〈강보〉가 〈청산별곡〉에 의하여 신악으로 창제되었음을 이 연구에서 밝혀냈다.

〈강보〉, 즉 〈발상〉의 음악들은 세종 때 창제된 이후, 세조때 기록에 보이다가 그 이후에는 자취를 감추었는데, 이는 〈강보〉가 〈청산별곡〉에서 발췌된 것으로 알려진 〈정대업〉 중의 〈휴명〉과도 선율이 유사하므로, 종묘, 조회에서 〈휴명〉이 사용되고, 〈강보〉는 세조 이후 더 이상 연주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 참고 문헌 ■

- [1] 張師勛, 國樂論攷, 서울大學校出版部, pp. 49-54, 1980.
- [2] 정경란, “고려 청산별곡(靑山別曲)의 현대적 습용(襲用)”, 고조선단군학, 제26호, pp.384-387, 2012.
- [3] 『世宗實錄』 卷138. 1a2~4.
- [4] 국립국악원, 시용향악보, 한국음악학자료총서 22, 1979.
- [5] 이해구, 세종장현대왕실록 22, 세종대왕기념사업회, pp. 242, 1973.